

말씀과 욕심의 저울질

본문 : 에스겔서 33장 21-33절

2020년 4월 14일(화)

#1. 다시 입을 열게 된 에스겔(21-22절)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왔습니다.

1차는 BC 605년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이때 끌려온 사람들이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의 일부였습니다.

2차는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과 왕족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중 일부가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도 이때 포로로 끌려 옵니다.

3차는 BC 586/7년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사로 잡혀 온지 12년 10개월 5일이 되던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나온 유대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병어리처럼 혀가 묶여 있던 에스겔의 입을 다시 풀어줍니다.

이것은 **겔 24장 26-27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성취된 겁니다.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당할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 외에는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하도록 그의 혀를 묶어 병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예루살렘의 멸망)이 성취될 때까지 에스겔은 약 3년 동안 병어리로 지낸 겁니다.

말씀이 성취된 후 다시 에스겔의 혀가 풀립니다.

#2. 누가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

가나안 땅에는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지, 누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계승할 자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 가나안에 남아 있는 자들?

24절, "...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가나안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자신들은 많은 수이니 당연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남은 자'들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신앙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의 집과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으려는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25-26절, "...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가나안에 남겨진 자들이 신앙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먹이며 스스로 '남은 자'라고 말하는 저들의 실체는,
피째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보다는 칼을 의지하며,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27-29절, "...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칼에 얹드러뜨리고... 먹히게 하고..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가나안에 남겨진 자들이 자신의 최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내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신앙의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혈통을 따르는 기독교인이요,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신앙의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남은 자'인지 아닌지는, 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2)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들?

30-31절, "...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에스겔이 처음 선지자로 부름 받아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때만 해도 포로 유대인들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분노를 넘어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 당하자 포로민들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에게 몰려든 겁니다.

에스겔은 처음 선지자로 부름 받은 후, 7년 만에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요구하나,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품고 사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마 7:13-14).

31-32절, "...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포로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듣기만 할 뿐,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할 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자들과는 달리,

바벨론 포로민들은 지금 위대한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신앙의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에필로그

가나안에 남겨진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경과 신앙을 들먹이는 자들입니다.
반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정은 있으나,
듣고 행하지는 않는 자들입니다.

그럼, 누가 신앙의 남은 자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였기에,
가나안 땅을 유업을 물려 받았습니다.
신앙의 남은 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내가 신앙의 남은 자인지 아닌지는,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